<제주여고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에 관한 기초조사>
분석 보고서

2022년 3월

- 공동기획 및 조사 연구 -

제주학생인권조례TF팀

사단법인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목차

I. 조사의 목적 및 배경

II. 조사 개요

III. 조사 설문 내용

IV. 조사 분석 결과

V. 결론

첨부) 설문지 <제주여고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에 관한 기초조사>

I. 조사의 목적 및 배경

제주여자고등학교(이하 ‘제주여고’) 학생 당사자로서 고교시절 3년간의 학창생활은 감내하기 힘든 상황들이 많았다고 한다. 이번 조사는 그러한 학생 당사자의 문제제기로부터 시작하였고, 학생당사자 인권단체 인 ‘제주학생인권조례TF팀’과 도내 인권단체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이 협력하여 1차적인 실태 파악 조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학생들은 제주여고 재학시절 들었던 다양한 욕설과 폭언을 ‘학교가 사립이어서’ 그러려니 하는 생각으로 넘기곤 했다고 한다.

하지만 학창시절 내내 쏟아지는 폭언은 학생 당사자에게 큰 상처를 냈다. 학생이라는 절대적 약자의 신분으로는 자신의 상처를 드러내거나, 학교의 적절한 조치를 기대하기가 너무 힘들었다. 대학입학에 볼모로 잡힌 학생들은 불안한 처지 때문이었다. 학생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조금이라도 드러내는 것에 대해 큰 두려움을 느꼈다.

학생들은 학생들의 우월적인 권리보장을 요구하지 않았다. 다만 자신들의 교육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교육자들이 학생들의 존엄성을 존중해주는 방식으로 교육 해주길 원하고 있다. 대학입학이라는 인생의 큰 분깃점에 대한 권한을 남용하지 말 것이며, 자신들을 낮추어 억압하지 말고,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길 원했다.

이에 제주여고 학생당사자를 포함하는 학생인권당사자 단체 ‘제주학생인권조례TF팀’와 도내 인권단체인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은 1차적으로 제주여고 졸업생(2022년 졸업자)들을 대상으로 상황 파악을 위해, 이번 기초조사를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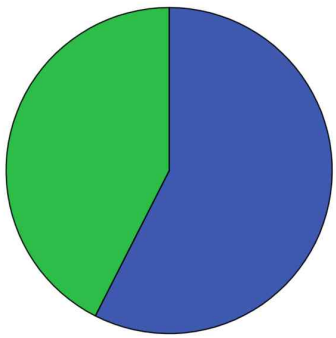
II. 조사 개요

가. 조사 주체 : 제주학생인권조례TF 팀, 사)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나. 조사 기간 : 2022년 1월 27일(목) ~ 30일(일)
다. 조사 대상 : 제주여고 졸업반 학생(2022년 졸업자 347명중) 87명 응답
라. 조사 사업 참여자 : 김채은, 오연지(학생인권조례TF팀) // 이건웅, 신강협(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마. 관련 문의 : jejuphri@gmail.com
바. 조사 보고서 작성 과정
  1) 조사사업 기획 : 2021년 12월 ~ 2022년 1월
  2) 설문 조사 : 2022년 1월 27일(목) ~ 30일(일), 네이버폼 이용
  3) 1차 분석 보고서 작성 : 신강협(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상임활동가)(2022. 2. 3)
  4) 2차 분석회의 : 김채은, 이건웅, 오연지, 신강협 (2022. 2. 5)
  5) 2차 분석 보고서 작성 : 김채은, 이건웅(2022. 2. 10)
  6) 3차 분석자료(취합) : 신강협 (2022. 2. 15)
  7) 3차 최종회의 : 김채은, 이건웅, 오연지, 신강협 (2022. 2. 17)
  8) 최종보고서 완료 (2022. 3. 1)

III. 조사 설문 내용(설문 응답 데이터)

▶ 특정되는 개인은 가명 처리
▶ 개인이 특정될 수 있는 사안 및 인권침해와 무관한 답변은 편집하여 삭제하였음.
▶ 가능한한 원문을 그대로 공개하였음.

1. 학교생활 중 교사로부터 폭언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욕설, 협박, 비방, 비하의 말)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있다	50	57.5	57.5	57.5
	없다	37	42.5	42.5	100.0
	합계	87	100.0	100.0	

사례 응답(원문)

- "너네가 이렇게 시끄러운 건 니네 부모가 잘못 가르쳐서다." + 쌍욕
- "공부 안하고 복도에 나와 있는 거 보기만 해봐 죽여버릴거야"
- 썅년, 미친년, 무릎꿇어라 등
- 도내 학교 중 모의고사 성적이 꼴찌에 가까웠단 이유로 수업시간 내내 “너네가 이러니까 이 모양이다. 학교를 망치는 건 너네다.”는 말을 들었고, “앞으로 쉬는 시간, 점심시간 등 휴게 시간마다 돌아다니거나 노는 모습을 보면 뒤진다”는 말도 들었다.
- “쌍커풀 자연이야? 수술한 거?”
- 멍청하다. 올해 학생들이 가장 안 좋다. 다음날까지 가정통신문을 가져오지 않으면 처음부터 손으로 작성하라고 할 것이다. 밖에 나가서 손들라고 할 것이다. 00한 새끼(놈, 년)들. 어디 가서 여고라 하기 쪽팔리다. 등
- 미친년, 멍청아, 바보냐, 넌 못 해 등 깎아내리는 말
- "미친년, 거지같은 년, 멍청아,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지"
- 시발새끼, 미친년들, 닥치고 앉아서 공부나 해라, 또라이냐, 각종 쌍욕들
- 느그 부모 / 저렇게 자는 애들이 나중에 술집에서 일한다.
- A 선생님과 상담을 했는데 다른 친구들에 비해 성적이 높은 편이 아니라 '저 대학교 갈 수 있을까요? 대학을 가지 말고 취업을 빨리하는 게 나을 거 같아요.' 라고 말하니 돌아오는 답변이 '그냥 남자를 잘 만나~ 남편을 잘 만나면 돼~ 그게 최고지'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너무 기분이 나빴으며 이뿐만 아니라 다른 날엔 ‘남자친구 사귀어야지?’ 라는 말과 필요 없는 터치를 했습니다. 이 일을 엄마께 말씀을 드리고 엄마께서 전화를 하려고 하셨지만 전화를 하면 제 생기부에 안 좋은 말이 적힐까 봐 무서워서 결국 전화하지 못했습니다. A 선생님께 상담을 하러 갔는데 B 선생님께서 큰소리로 ‘시발’이라는 욕을 시작해 ‘왜 이제야 상담하러 오는거야 시발‘ ’전문대면서 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학교 입시에 대한 도움을 얻으려면 선생님들밖에 없었는데 상담받으러 가서 들은 말이 욕이고 무

시였습니다.

-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 우리 학교가 꼴등했다며 반마다 돌아다니시며 이번 3학년들이 학년이 제일 멍청하다 쪽팔리다 등의 폭언을 하셨고 쉬는시간에 복도에 있거나 친구들과 이야기 하는 모습, 자는 모습을 보이면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너네가 제일 멍청하다 등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감, 자존감도 떨어지고 공부 의욕도 떨어졌습니다.
- 저에게 한 욕설은 아니였지만 다른 친구에게 또라이 아니냐, 싸가지 없다라는 말을 하는 걸 들음
- "이 시발년들 또 지랄이네 (교무실에서 학생이 버젓이 있는데도 욕함) 학생 이름 000 아 시발년 너네 부모님이 너희를 잘못 키워서 그런거다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먹어봐야 아냐 싹다 망하기 싫으면 똑바로 해라"
- 교무실에 갔을 때 어떤 한 선생님이 다른 선생님께 '시발년'이라는 단어를 쓰며 다른 학생의 뒷담을 하는 것을 들음. 수업 중에도 마음에 들지 않은 학생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쌍욕을 퍼부음
- "입시프로그램을 희망자 대상으로 공지했으면서 신청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가한다고 하였음
- (목격)학생과 이야기를 하며 구석 쪽으로 몰아가 언성을 높이거나, 방과후 시간 아무도 없는 교실에서(석식시간이라 대화상황 중 교실을 나감) 학생과 교사가 단둘이 대화함. 상황이 위협적으로 보였음."
- 수업시간에 반 애들이 집중 안 한다고 출석부를 던지고 수업을 안 하겠다고 나감, 집중을 안했다고 집중을 안 한 일부도 아니고 반 전체에게 세특을 안 써주겠다고 협박함
- 이런 미친년
- 수업 도중 미친년들 이라고 하심
- 수시상담을 하러 교무실에서 담임 교사 옆에 앉아 있었는데 반대 편에 있던 C 교사가 옆에 있는 D 교사에게 “선생님, 오늘 ooo왔어요?”라고 묻고 D 교사가 “아뇨, 안 온 것 같던데요.”라고 말함. (중요하진 않지만 둘 중 누가 ooo이 생리결석으로 빠진 것 같다는 말을 했던 걸로 기억함.) 그러고 나서 C 교사가 D 교사에게 “쌤, 이새끼 자기가 원하는 대학 쓰고 싶어서 일부러 나랑 상담하는 거 피하는 것 같은데?”라고 말함. 이어서 C 교사가 자리에서 갑자기 일어나더니 “쌤, 얘 나중에 상담할 때 봐요. 내가 이새끼 눈에서 눈물 질질 짜게 만들어줄 거니까”라고 말함. 그 말을 듣고 나는 너무 놀라서 아무것도 못하고 C 교사쪽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 교무실에 나를 제외하고 다른 외부 교사?행정실 교사?같은 분이 계셨는데 그 분 역시 C 교사가 한 쌍욕에 놀라서 그 쪽을 쳐다봄. 그런데 C 교사가 교무실에서 그렇게 크게 쌍욕을 했음에도 나와 그 모르는 교사 한 분을 제외한 다른 3학년 교무실 교사들은 아무렇지도 않아했음. 놀라지도 않거나 들어도 못 들은 척을 하거나. 수시 상담이 끝나고 수능 준비기간에 몇몇 교사들이 반에 들어오셔서 갑자기 소리지르며 수능 공부나 하라고 화내셨음. 공부도 안하면서 너네 수능 최저는 맞출 수 있냐며 윽박지르심. 근데 우리가 반에서 놀고 있던 것도 아니고 그냥 평상시처럼 공부하고 있거나 일부는 쉬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기 수업시간도 아닌데 들어와서는 막 화내고 가셨음.
- "꺼져 도랐냐 너네는 생각을 하냐 멍청이들"
- 저희 반 반장이 결석한 날, 칠판을 지우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반 전체에 화를 내셨다. 반장이 누구인지 물으셨고 ㅇㅇㅇ이라고 대답을 하자 그런 애를 반장으로 뽑은 게 제정신이냐, 그런 애가 반장이니 반이 이 모양이지, 너네 정말 이기적이다 등등 비하의 말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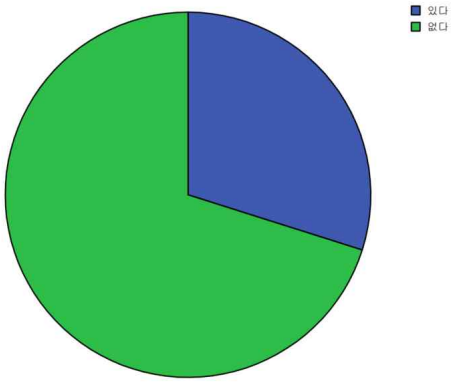
20~30분 정도 하셨다.

- "멍청한 년들 미친년들 이 씨발년 씨발 너 알아서 해라"
- 너 때문에 동아리 애들 다 나가는 거 아니냐 니가 어떻게 했길래 애들이 다 나가냐.
- “별 것도 아닌 거 가지고 목숨거네. 마음에 안 들면 제주여고에 있지말고 전학가.” 정확한 말은 기억나지 않지만 매우 화를 내 학생들의 기를 죽이고 욕설섞인 폭언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B 교사 무슨 말을 하시던 말 한마디한마디 화가 나 계시는데 말투 고쳐주셨으면 합니다.
- 씹새끼들 다 뒤졌다. / 내가 너네 대학 다 떨어지게 물떠놓고 빈다. / 머리 빈 년들 / 쟤 미친새끼 아니?
- “이런 것들을 년이라고 한다. 미친년”
- 물건 잃어버린 적이 있는데 쌍욕하면서 정신 안 차리냐고 화낸 적 있음
- 00과목 세특 수정 차 교무실에 들렀을 때 세특 기초 자료를 작성하지도 않았으면서 왜 신경을 쓰냐, 같은 반 학생들은 대부분이 작성했는데 왜 안 했냐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기초 자료는 분명히 선택의 문제이고, 오타를 수정하고자 간 것이었는데 이러한 말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실험보고서를 제출하러 갔을 때 옆에 계시던 선생님께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때 한 교사가 마스크 써야 되나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정확하게 하신 말은 기억이 잘 안나요) 교사 옆에 있던 다른 교사가 말을 듣고선 ‘알바야 시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이 저에게 직접적으로 한 말은 아니지만 일단 적었습니다)
- 개인으로 들은 것은 아니지만 전체를 대상으로 쌍욕을 들었다
- "1 2 3학년 때 B 교사가 솔직히 말한다며 너네들 00과목 정말 못하는 거 알고 있지? 이런 말을 굉장히 자주 하심 물론 본인이 정말 못했던 것도 있지만 직접적으로 계속 들을 때 마다 속상했음.
- 0학년0학기 시작 수업에 E 교사는 인의예지 4가지를 가지지 못한 사람을 우리가 싸가지없다고 말하죠?? 여러분이 수업에 집중하지 않고 떠드는 행동도 싸가지가 없는 거에요 이러면서 여러분은 싸가지가 없는 거에요 이런 식으로 말함.
- 0학년 때 C 교사가 제대 정시 입시설명회에 학생들이 많이 신청하지 않자 원래 다 가는 건데 코로나 때문에 축소해서 가는 거고 안 가도 줌으로 봐야되는 건데 가면 밥도 주는데 왜 안가냐!! 말씀하시고 너네 신청 안 한 애들은 그 날 교내 청소시킨다! 라며 협박하심. (원래 종소리로 안내하는데 사이렌을 틀며 방송을 시작했고 굉장히 소리를 치시면서 말씀하심.) 이 외에도 다른 안내사항이 있을 때마다 협박하는 어조 혹은 소리치시면서 말씀하심. (예) 학생!! 빨리빨리 안와??? 지금 당장 와!!)"
- 멍청하다 여학생들은 남학생들보다 공부를 못 한다 등의 이야기를 수업 중에 하셨습니다. 남학교와 성적을 비교한 적은 많습니다. 또한, 저에게 하신 말은 아니지만 자신이 원하는 대학을 지원하고 싶다고 선생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미친 소리 하지마라 등의 말을 해서 그 친구가 우는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미친 소리 하지마라’라고 말한 선생님께서는 다른 선생님에게 자신이 한 말을 자랑하듯이 전달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친구에게 너가 애 따까리냐 등등의 말을 한 것을 전해들은 적은 있었습니다.
- "씨발년들아 병신새끼들 그딴 식으로 해라 이 씨발년들아 니가 그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
- B 교사 : 수업중 학생들에게 파충류라고 부름 / 000이라는 친구가 수업을 잘 듣지 않으니

'고유정도 아니고'라는 발언을 함

- 자습시간에 복도에서 얘기했다고 개씨발년들아 , 한번 맞아볼래?(손 올리며 때리는 시늉)
- 제 친구한테 B 교사가 0학년 00 교과 시간에 미친년이라고 하는 것은 들었습니다.
- 내신 등급 낮은 애도 **대 쓰나 봐요?
- C 교사 - 미친년 , 제대도 못가는 새끼들아 , 또라이새끼야 싸가지없는 새끼야 , 미쳤냐? 등등
- A 교사 - 자신이 학과 이름을 잘못 봤는데 복도에서 엄청나게 소리를 지름 그러고 나도 잘못한 게 있다며 (내가 잘못하거나 실수한 일 전혀 없었음) 사과도 제대로 하지 않음. 사과를 요구하자 교무실에서 다른 학생이 잘못한 일을 내가 잘못한 일처럼 크게 소리를 내서 다른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쳐다보는 등 창피함을 겪음
- 개새끼들아,뒤지고 싶지,눈 안깔아?,니네 엄마아빠 뭐하는 사람이냐,안 닥쳐?,임마,새끼야
- 성적이 잘 나온 것은 학원때문이다. 라는 저의 노력을 무시하는 비하의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인성이 좋다는 공부를 잘하지 못하는 학생의 인성을 무시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수차례 성적을 가지고 비방이나 비하의 말을 들었습니다.
- "시발, 시발년 자이네들은 대학못가."
- ""너가 (옆에 있던 친구이름) 따까리냐?" (교무실 같이 갔을 때 한 말)
- “(0학년 0반 학생 2명 이름) 걔네 둘은 어차피 수능 망할 거야 너도 그렇게 되기 싫으면 내 말 들어"
- "(0학년 0반 학생 이름) 너 걔랑 친하지? 친하잖아 친하게 지내지마 그 무리랑"
- "넌 어차피 안 될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대학상담 중 한 말)"
- C 교사로부터 너 미친년이야? 뭐하는 년이야? 이 미친년아 등의 폭언을 들었고 A 교사로부터 정시로 가는 애들은 잘되지 못할 것이라는 비하의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3. 학교생활 중 본인 교육권(교육받을 권리, 학습할 권리 등)을 방해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있다	26	29.9	29.9	29.9
	없다	61	70.1	70.1	100.0
	합계	87	100.0	100.0	

사례 응답(원문)

- 수업시간에 수업을 제대로 해주지 않음
- 과학중점반이 아니라는 이유로 과학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 "야간자율학습 중 큰소리로 학생들에게 말을 거는 행위, 모의고사 중 학생의 답을 지적하는 행위, 모의고사 및 내신시험에 감독이 늦게 들어와 시험에 지장을 주는 행위"
- 한창 자소서를 쓰고 입시를 준비할 시기에 우리 반과 관련 없는 교과 선생님이 직접 교실에 들어와서 본교무실에 너무 찾아가지 말라고 주의를 줌. 그 후로 본교무실 선생님들과의 만남이 약간은 어려워지고 눈치를 보게됨.
- 자습하는 도중에 들어와 자습 분위기가 소란스러워짐.
- 수강자의 수가 기준에 못 미칠 경우 폐강하는 등 학습을 선택할 기회를 침해받음
- 선생님이 무단으로 수업에 들어오시지 않았다.
- "시험기간에 모르는 것을 질문하러 갔었는데 시험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시험 하루전이고 그 과목은 첫번째 날에 시험이었음)"
- 주체적으로 미래를 꾸려나가야 할 상황에 무시받음
- 00과목 수업시간에 B 교사가 수업을 진행하지 않음. 나중에 시험기간이 다가와서야 수업을 빠르게 나감. 00과목 수업시간에는 과학지문을 다루는 시간이었는데 우리 반이 과학중점반이라는 이유로 “너네는 과학 하는 애들이니깐 다 알지?, 다 설명 안하고 넘어갈게.” 라고 한 뒤에 과학지문을 그냥 읽어주기만 함. 과학지문 중에는 우리가 과학탐구 수업 때 배운 내용도 있지만 안 배운 내용도 있어서 우리도 처음 접하는 거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한데 그냥 지문을 읽기만 해서 결국 수업이 끝나고 우리가 알아서 이해하면서 읽어야 했음. 설령 과탐 수업 때 들어본 내용이라 하더라도 과중반 모든 친구들이 전부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데 그냥 읽기만 함. 결국 모르는 건 학원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봄.
- 3월 한 달 간 교과 수업을 진행하지 않았다. 5월이 중간고사고 4월 동안 중간고사 범위 진도는 나갈 수 있다는 게 이유였다.
- "교내 안내 방송이 나왔는데 선생님께서 화나셨는지 마이크에 대고 고함을 질러 조용한 자습시간 중 모두가 놀란 적이 있다"
- 온라인 수업 때 수업을 안 해줘요
- 수요일 창체 시간에 조용히 앉아 독후감을 작성하고 있는데 일부 반 학생들이 시끄럽게 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문을 박차고 교실로 들어와 소리를 지르며 화를 냄. 조용히 있던 학생

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큰 소리로 화를 내 깜짝 놀랐고, 너무 놀라 심장이 두근거림. 다른 학생들도 모두 기가 죽어 분위기가 싸해지고 아무 말도 못함. 정신적인 충격과 함께 조용히 학습할 권리를 방해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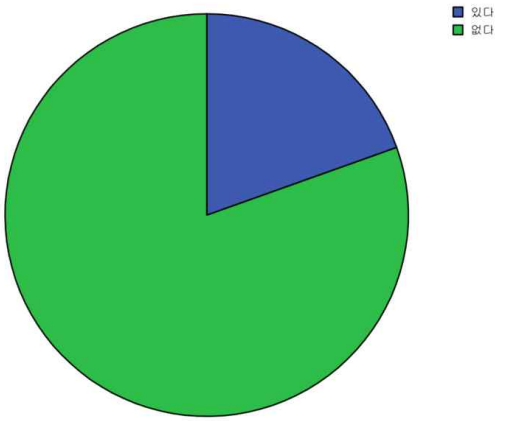
- "0학년때 G 교사는 친구들이 떠든다고 경고를 하다가 출석부를 바닥에 세게 내리치며 너네들은 선생님이 안 보이냐?? 고 말한 뒤 훈계를 이으시다가 갑자기 너네들은 세특 필요없지?? 라고 말하며 세특을 써주지 않겠다고 협박하심. 이후에도 세특 정말 안 써주실 거냐고 여쭤봤지만 어차피 너네 세특 거의 비슷하게 쓴다며 가라고 하심.
- 0학년 때 00과목 시험범위를 수능완성 책 한 권을 설정하고 진도를 다 나가지 않고 시험을 출제함.
- 0학년 때 자기소개서 혹은 면접질문을 배정받은 선생님께만 여쭤보고 다른 선생님께 여쭤보지 말라고 학생들에게 혼내며 짜증내심.
- 그걸 굳이 왜 하냐는 식으로 돌려서 모두가 이상하게 생각하게 큰 소리로 말함
- B 교사- 수업 시간 내내 수업과는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면서 진도를 나가지 않은 일이 수차례 있었다.
- 제가 3년간 제주여고를 다니면서 00과00 교과과목은 최소 1회 이상 수업교과시간에 다루지 않은 지문 등을 시험범위에 포함했습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선에서 범위가 정해졌다면 문제 삼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0학년 0학기 기말고사 시험에서 00교과 시험범위가 교과서 몇 지문(기억이 확실히 나지 않네여 ..)과 수능특강 몇 지문, 그리고 수능완성의 지문 거의 전체였습니다. 수업시간에 다루지 않는 지문을 시험에 내는 것은 영어 시험에서는 사실 1학년 첫 시험에서부터 일어났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수능특강, 수능완성 등을 시험에 출제하는 것은 사실 다른 고등학교에서도 번번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제가 문제 삼는 것은 선생님들의 태도입니다. 0학년 00과목 교사들은 교과 선생님들 중 3명,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실질적 교과 수업은요? 몇 시간이나 될까요? 학생들이 목매달고 있는 시험에서 시험 범위와 시험에 직접적 관련되는 교과 시간이 가장 반비례한 과목이 00과목였습니다. 0학년 0학기중간고사 준비를 신성여고 학생들과 함께 했었는데 그들의 학교 00과목 교사들은 수능특강을 최대한 시험범위에 포함시키되 그 시험범위에 포함되는 지문의 반 이상을 수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동안 저희 학교 00과목 교과 시간은 자습으로 흘러갔고요. 물론 0학년 기말고사가 학생들의 00과목 실력을 가르기 위해 결정된 시험 범위인 것을 압니다. 시험이 끝난 후에 모고를 보면 무조건 1등급을 받는 학생들이 1, 2문제만 틀리며 뿌듯해 하는 것을 보고 기말 시험이 모고와 비슷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로 인해 학생들은 모두 입을 다문 것이 아닐까요? 모의고사, 수능을 항상 시험범위에 포함시킨 교사들, B 교사가 교과시간 "지문을 직접 출제할 수 있었으면 여기 없었겠죠. (해당 교사는 기회만 된다면 모의고사 지문을 직접 출제했을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라는 발언 등 00과목 교과 선생님들은 모의고사를 신뢰하고 모의고사에 의존하였습니다. 하지만 모의고사와 비슷하게 출제하겠다라는 명목 하에 사실 모의고사와 비슷하게 준비하면 된다는 정당화가 존재했습니다. 그들은 교사의 재량을 운운하며 학생의 교육권을 침해했습니다. 학생들의 모고 성적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 것이 아닌 모고 성적과 비슷한 내신 성적을 받을 수 있게 노력하셨습니다. 강의를 듣지 않는 학생들을 꼬집으며 강의를 하지 않겠다고 하고 자신이 필요한 이들은 직접 질문을 하라면서 학생들이 직접 찾아가게 만들며 갑과 을의 위치를 지정했습니다. 시험날이 다가오면 서술형에 무엇이 나올지 알려주며 학생들의 불만을 잠재웠습니다. 총 3명의

00과목 교과 선생님들이 있었지만 그중 단 한 명의 의견에 치중되었습니다.

- 저희가 1학년 때 B 교사는 학생부장 교사였고 학기 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학생들은 자신을 좋아한다고, 왜나면 자신이 학생들의 이름을 거의 기억할 수 있었다고. 그 기대감을 가지고 고1을 지내면서 교사는 첫째로 교사담당과목 성적이 뛰어난 학생들의 이름을 기억했고, 둘째로 교사의 수업에서 눈에 띄는 학생들의 이름을 기억했고, 셋째는 없습니다. 수업도 듣지 못한 지문을 통째로 외워 시험장에 들어간 것을 사교육의 폐해라고 하셨던 선생님. 0학년 0학기 기말고사는 학생들이 외우지도 못하게 만드는 지문의 양이 아닌 높은 질의 공교육 수업이 해결책이었지 않았을까요?
- 입시 상담 중 잘못된 정보를 알려주거나 충분하지 못한 정보로 입시에 전혀 도움을 받지 못했다
-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을 선정하여 따로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다.
- 마스크를 안 쓰고 수업함
- 반장선거 도중 A 교사는 후보자를 뽑기도 전 "어떤어떤 친구가 잘할것같은데 그 중에서 뽑자"라며 반장선거에 나갈 기회조차 특정 학생들에게만 눈치를 주었고 나갈 마음이 있던 친구도 나가지 못 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함
- 00과목이 일찍 끝나고 반 아이들 전체가 교실로 올라갔는데 C 교사는 저희반 교실 앞에서서 빨리 교실로 들어가라고 하여 영문도 모른 채 저를 포함한 저희반 아이들은 교실에서 모의고사 성적이 다른 인문계 학교에 비해 낮다는 소리를 치셨고 이외에 왜 일찍 왔냐는 등의 사소한 트집을 잡아 당시는 엄연한 수업시간 이였고 자습중이던 저를 포함한 여러명의 아이들이 침해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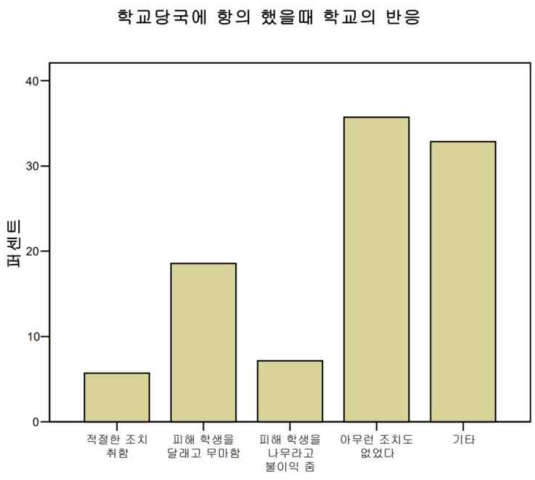
5. 학교에 인격모독 / 비방 / 협박 / 체벌 / 성희롱 등을 당해 항의해 보신 적이 있나요?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있다	17	19.5	19.5	19.5
	없다	70	80.5	80.5	100.0
	합계	87	100.0	100.0	



6. 학교에 항의 했을 때 학교 책임자(담당교사 또는 교장 등 학교 책임자)의 반응은 어땠나요?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적절한 조치 취함	4	4.7	5.7	5.7
	피해 학생을 달래고 무마함	13	15.1	18.6	24.3
	피해 학생을 나무라고 불이익 줌	5	5.8	7.1	31.4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	25	29.1	35.7	67.1
	기타	23	26.7	32.9	100.0
	합계	70	81.4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6	18.6		
합계		86	100.0		



사례 응답(원문) 6번 기타문항

- 항의해본적이 없다.(6회)
- 항의한 적은 없음
- 항의하지 않음(4회)
- 항의하지 못하고 피해학생을 달래주기만 했음.
-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습니다...
- 그냥 내가 참아야지 하고 항의하지 않음
- 가해 교사의 행동을 성격이라며 정당화하고 오히려 미화함. 항의했을 때는 가해교사로부터 사과를 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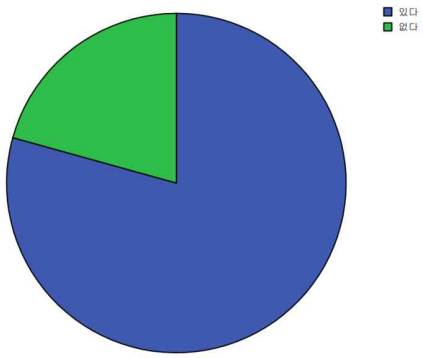
사례 응답(원문) 7번 문항

- 학생도 사람이에요 학생보다 나이가 많다고 교사라고 학생들을 막 대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손찌검하려는 자세 욕설을 하는 거 다 그만해주세요
- 00과목 주관식 답안에 대해 오답처리가 된 이유를 여쭤보러 감. 교사는 답지를 보고도 이해를 못 하냐고 하며 바보라고 비하했고, 이에 표정이 안 좋아진 나를 보고 그제서야 답변

을 해주기 시작함. 교무실을 나서고 울음이 터진 것을 보고 다른 교사가 달래줬지만 그 교사의 성격이 원래 그렇다, 츤데레 성향이 있어 그러니 이해하라며 무마함. 이후 부모를 통해서 항의했을 때는 부모에게 교사 본인이 잘못한 것도 없고 학생에게 어떤 언행을 했는지 기억도 못 함. 뒷날 해당교사에게 직접적으로 사과를 받음.

- 해당 사실을 교사들에게 말했지만 웃어 넘겼다.
- 친구가 담임교사에게 팔을 맞았을 때 교장실에 자초지종을 설명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오히려 생기부는 신경 안 쓰냐며 참으라고 함
- 담임 교사에게 말했어요
- "항의 할 교사조차 없었음. 정말 좋은 교사가 몇 분 계셨지만 그 교사들에게 피해갈까 차마 말하지 못함"
- 생기부 등 보복당할까봐 못함 그리고 0학년때 친구가 교장쌤께 가서 말했을 때 대처가 많이 미흡한 것을 보고 여기서 말해도 달라질 게 없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냥 참음
- 반장을 통해서 A 교사에게 해당 교사가 이러이러하게 말한 게 불편했고 고쳐줬으면 좋겠다라고 전달했으나 반성의 기미나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생각조차 없었고 오히려 조용하거나 만만한 친구들만 학교 끝나고 남겨 화풀이하고 내가 뭘 잘못했냐며 적반하장으로 화만 냄
- A 교사는 아침조회시간에 말했던 보고서 마감일을 제가 듣지 못했다는 이유로 듣지 못했으니 학교에 나오지 않은 것과 다름없다며 무단결과 처리를 하여 바로 옆에 계시던 교감 교사에게 부당함을 알렸습니다

10. 교사가 수업 중 마스크를 쓰지 않는 등 방역수칙 혹은 학교규칙을 어기는 모습을 본 적 이 있습니까?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있다	69	79.3	79.3	79.3
	없다	18	20.7	20.7	100.0
	합계	87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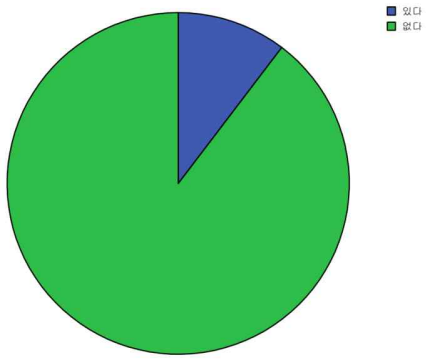
사례 응답(원문) 11번 문항

- 수업중 마스크를 끼지 않고 수업을 함.
- "C 교사, 대놓고 마스크를 쓰지 않고수업"
- 마스크는 코와 입이 가려져야 하는데 무슨 코로나 전에 급식실 아주머니들이 쓰던 투명 막 같은 거를 쓰고 오셔서 수업 하기도 하고 마스크를 말 하는데 불편하다고 아예 벗고 하겠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마스크를 그냥 마스크 걸이? 에 걸고만 다니는 분도 있었어요
- "대놓고 마스크 안쓴상태로 수업하거나 답답하니까 잠깐 내리고 수업하겠다고함"
- "선생님들이 수업에 들어올때나 밖으로 나갈때 잘 착용하지 않는 모습을 보임"
- 마스크를 벗고 수업하는 경우가 많으며 턱스크, 입스크 등 마스크를 끝까지 착용하지 않는 경우는 대부분임. 가끔 한 교사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학교 내외를 돌아다님. 교무실 안에서는 교사 대부분이 마스크를 벗고 있으며 마스크를 똑바로 쓰고 있지만 친구와 붙어 있는 학생에게 되려 나무람.
- 수업 시간 중 답답하다고 마스크 벗는 것을 본 적 있습니다
- 수업시간 도중에 답답하다며 마스크를 벗고 수업을 하셨습니다.
- "교무실에 들어가면 마스크를 쓰지않고 대화를 하거나 음식물을 섭취하고 있음 수업 및 상담처럼 가까운 거리에서 대화할 때에도 마스크를 턱에만 걸치고 함
- 조례시 마스크를 교무실에 벗어두고옴"
- "교무실에서 마스크 제대로 쓰고있는 사람을 본적이 없음
- 수업할때 턱에 마스크 걸치고 수업
- 따로 교무실로 불러서 얘기할때도 마스크 착용 안함"
- 수업 중 마스크 안 쓰고 수업
- A 교사, B 교사, C 교사 수업할 때 마스크 안 쓰시고 교무실에 갔을 때도 마스크를 쓰신 선생님들이 몇분 안계셨습니다.
- 교무실에 갈 때마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 돌아다니시고 말을 하시는 교사들을 많이 보았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 학생들과 대화를 하는 교사도 보았고 수업을 할 때도 마스크를 쓰지 않는 교사도 있었다.
- 수업시간에 코까지만 마스크를 하거나 아예 내려서 하는 경우가 있었다
- 수업 시간은 물론 조회, 종례시간에도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고 말을 해 학생들이 불편해함

- 교무실에서 아무도 안씀
- "마스크 벗고 수업하는것은 기본 입니다. 나는 말을 많이 해야해서 마스크가 불편하니까 벗겠다 심지어 가장 중요한 시험 시간에도 마스크를 벗고 시험감독을 보셨습니다. 그것 뿐만이 아니라 교무실에서도 마스크 벗고 다같이 간식을 나눠먹고 침을 튀기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국에 남교사들끼리 몰려서 뒷 농장에서 담배 아지트를 만들어서 다같이 담배를 핍니다. 교육하는 공간에 이게 말이 됩니까?"
- 교무실에서 마스크 착용을 수시로 하지 않는다.
- 수업 중 마스크를 내리고 학생들이 몇차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요청 드린 적이 있음
- "특정과목 시간에 마스크를 벗고 수업함(학생들의 동의 하에 이루어질때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었음)
- 학교 뒤 과수원 인근에서 흡연을 함(교실에서 보이는 곳에서)"
- 마음대로 마스크 벗고 수업
- 교사 한분이 벗고 수업에 들어왔었는데 며칠뒤 다른분도 마스크를 벗고 수업에 들어왔고 어떤 애가 항의했다는 소문이 들리자 마자 쓰고 수업에 들어왔지만 첫번째로 벗었던 분이 동영상을 보여주는 등 학생들이 보지 않을때 잠깐 마스크를 벗는 모습을 종종 봤다.
- 한 교사 마스크 착용 안하고 수업하시면서 기침 재채기 다하심
- 어떤 선생님은 우리반이 엄청 넓어서 마스크를 쓰고 말하면 뒤에 있는 학생까지 전달이 잘 안되서 우리한테 동의를 구하시고 마스크를 벗은 선생님들도 계심.(근데 이건 뒤에 앉은 나 역시 마스크 쓰고 말하시면 잘 안들려서 괜찮음)
- 수업시간에 마스크를 내리고 수업했다
- 대학 진학과 관련하여 교무실에 갈 일이 많았는데 항상 마스크를 끼지 않으시는 선생님이 계셨다.
- 00과목 수업시간에 수업시작부터 마스크를 턱아래로 내림
- 수업시간 혹은 복도에서 마스크를 목에 걸거나 손에 들고 있지도 않은채로 돌아다님
- “F 교사 항상 마스크를 벗고 수업을 하셨음. 교실에 들어오자마자 마스크를 벗으셨음"
- A 교사, D 교사, C 교사
- 00과목 수업 시간에 A 선생님께서 거의 매 수업 시간마다 마스크를 턱에 걸치거나 코에 걸쳐 착용한채 수업을 진행하였고 이로 인해 앞자리에 앉은 친구들은 침이 튀긴다며 불평을 하곤했습니다.
- 학생들의 허락도 없이 당연하다는 듯 마스크를 쓰지 않고 수업함.
- 마스크를 안 써요
- "C 교사 : 수업 중에 가끔 마스크를 벗곤 함. 마스크 스크랩으로 마스크를 그냥 목에 걸고 수업함.
- D 교사 : 거의 항상 마스크가 입 바로 밑에 위치한 턱스크 상태를 유지함.
- A 교사 : 수업 중에 가끔 마스크를 벗곤 함. 마찬가지로 마스크 스크랩으로 마스크를 그냥 목에 걸고 있음."
- A 교사, C 교사 : 당당하게 마스크 벗고 수업 하시는 이유가 궁금해용 ㅎㅎ 왜그러시는거에용??
- 수업시간에 마스크를 써달라는 학생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수업시간에 마스크를 벗어 불쾌했었던 경험이 잦았다.
- 수업내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음

- "마스크 안 씁니당
- 수업을 하던 중 숨이 너무 차서 양해를 구하고 마스크 내리시는 건 정말 괜찮은데 수업 초반부터 말도 없이 그냥 마스크 내리시는 분도 꽤 있었어요"
- 마스크 잘 안끼고 수업함
- 마스크 쓰지 않고 돌아다니기
- 코로나19 초반(20년)에 마스크 착용이 말하는데 불편해 수업에 차질이 있다며 마스크를 내려쓰거나 벗고 수업하시는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21년에는 마스크를 인중까지 내리고 수업하거나, 교무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시는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 마스크를 끝까지 올리지 않고 턱스크를 하는 등 걸치다 말았다
- 마스크를 쓰지않고 수업을 했다
- 마스크를 쓰지않고 복도를 돌아다니거나 급식실에서 마스크를 쓰지않고 돌아다님
- 나이 드신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급식실에서 사용하는 마스크 같은 것을 썼는데 3학년 때 국어 교사 중 한 분이 처음에는 잘 쓰고 하셨지만 점점 마스크를 거의 착용하지 않고 수업을 하심.
- 선생님께서 마스크를 쓰지않으시고 수업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마스크를 쓰지않으신 교사는 수업 전에 쓰지않고 수업해도되냐는 등의 허락을 받으신분이 대부분이셨습니다.
- 기본 턱스크
- 그냥 마스크를 안써요..
- "00과목 교사는 영화를 감상하는 날 다들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 마스크를 벗어도 되겠냐고 물어보시곤 마스크를 벗으셨습니다. 다른 날 수업 중에도 간간히 마스크를 벗으시고는 책과 같은 것으로 입을 가려 말씀하시곤했습니다.
- 00과목 교사가 설명을 위해 마스크를 벗으신 적이 있습니다."
- "00과목 A 교사는 수업 시간에 마스크를 턱에 걸치거나 아예 빼고 수업했다"
- 코까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입만 간신히 가리는 코스크를 하는 선생님이 대다반수였다
- 코스크를 하고 수업하거나 아예 벗고 수업을 하셨다
- 수업 중 마스크를 쓰지 않은 모습을 본 적 있다.
- 수업지 중 마스크를 벗고 수업을 함
- B 교사, A 교사는 수업 중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음 무조건 코가 보이도록 하거나 턱에 걸침
- A 교사, C 교사는 학생들의 동의를 얻지 않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셨으며 학생들이 매번 마스크 써달라고 요청할 때만 쓰시고 다음에는 안 쓰는 것이 반복됐습니다.
- 수업때 마스크를 벗음
- "A 교사, C 교사 수업 할 때마다 마스크 내리고 수업함
- 학생들이 마스크 써 달라고 몇번이나 말했음에도 고쳐지는 모습이 보이지않았음
- A 교사 교무실에서 마스크 벗고 계속 간식먹고 상담하는 와중에도 마스크안쓰고 침 튀기면서 말해서 매우매우 불쾌했음 써달라고 말해도 절대 안고침"
- 담임 A 교사가 일대일로 상담을 할 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불쾌하여 착용을 요청을 하면 물과 과자를 먹으며 끝까지 착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업중에도 거의 매번 비염이 있어 불편하다는 이유를 대며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반장이 나서 착용을 정중히 요청하여 그제서야 착용을 한 것을 제외하면 거의 매번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12. 성희롱 혹은 성추행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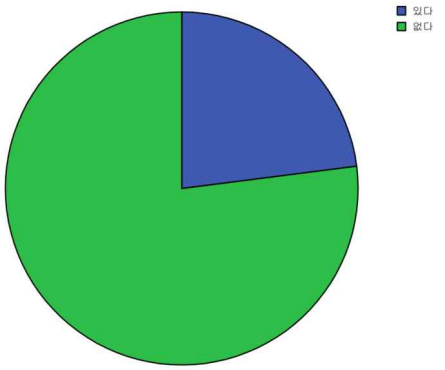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있다	9	10.3	10.3	10.3
	없다	78	89.7	89.7	100.0
	합계	87	100.0	100.0	

사례 응답(원문) 13번 문항

- 상담시 갑작스레 다리를 쓰다듬거나 손을 잡음
- 교무실에서 상담할때 어깨를 쓰다듬거나 손을 잡은적이 있음
- 한 남자
- 남자 선생님의 바지 지퍼가 열려있어 안의 속옷이 자주 보였다
- 상담할 때 만져요 .
- "A교사, 계속 바지 지퍼 내리고 다님, 다른 교사를 통해 불쾌하다고 몇번이나 말했으나 고쳐지지않음"
- A 교사는 사과를 하시면서 팔을 제 어깨에 올리고 사과를 받아달라고 하셨고 그 당시 너무나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피하고 나서는 사과를 받아달라며 악수를 여러번 요청하였습니다.

14. 교사가 함부로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신상정보를 유출하여 프라이버시를 침해한 적이 있습니까?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있다	20	23.0	23.0	23.0
	없다	67	77.0	77.0	100.0
	합계	87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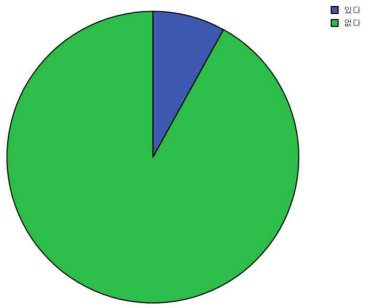
사례 응답(원문) 15번 문항

- 해당 학생의 동의 없이 반 전체 앞에서 석차와 성적을 발설함 교사용 학생 내신 자료를 반톡에 유출함
- 학기초에 반 학생들의 내신 성적이 나온 표를 반 단톡에 보내고 제대로 사과도 하지 않음
- 학기초반에 0학년 전교생 성적과 저희반 성적이 적힌 파일이 저희 단톡방에 올라왔습니다.
- 반 학생들의 전교 등수, 내신 점수를 엑셀 파일로 올렸던 적이 있음 (이는 선생님이 공식적으로 사과를 한 부분이긴 함)
- 내가 지원한 대학 애들한테 말함
- "학급 단톡방에서 일부 학생의 성적이 유출되었고
- 상담시에도 다른 학생의 성적을 모니터에 유지한 채로 상담을 진행함"
- 제 담임 교사인 A 교사는 학기초에 학생상담을 위해 제출하는 종이에 작년 성적이 적혀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이들을 펼쳐놓으며 아직 못제출한 학생들에게 "얘들아 이거보고 참고해 ~"라는 식으로 말하여 먼저 제출한 학생들의 성적 등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기초에 선생님께서 아버지 어머니 전화번호를 수집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아버지란에 번호를 안적은 친구들의 이름을 반 아이들이 다 있는 상태에서 호명하며 "XXX, 아버지 전화번호, 없는거 맞지?" 라고 물어보며 아이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았습니다. 또 개인 상담 시간에 저와 성적이 비슷한 친구가 있으면 성적을 알려주기도 하고 생기부를 잘 적는 친구가 있으면 " 얘 생기부 잘적으니까 얘랑 친해져" 라고 말하며 도움을 받으라는 식으로 얘기하였습니다. 대학 입시 상담때에는 친한 친구들이 제출한 대학 입시 카드를 보여주며 "이런식으로 적으면 망해. 얜 너무 상향이야 다 떨어져." 또 " 얜 6개 다 전문대 적었어" 라고 말하며 제 친구들을 비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해가 가지 않았던 부분은 대학 적는건 자신이 가고 싶은 대학을 적는 것이고 자기 마음인데 친구들이 상향인 대학을 적었다고 화를 내며그 대학을 적지 못하게 하고 몇번이고 다시 적어오라고 돌려보내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이런 시간들을 겪으며 친구들이 많은 상처를 입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 학생들이 드나드는 교무실에서 공개적으로 타학생의 내신성적, 지원한 학교명, 수능 성적 등 스스럼 없이 유출하였다.
- 친구가 개인적인 이유로 자퇴를 하게되었고 교사에게 아이들에게 말을 꺼내지 말아달라고 했는데 친구가 자퇴하고 종례시간에 자퇴사실을 말하심
- 학생들도 다 있는 곳에서 점수와 대학교를 그냥 대놓고 큰 목소리로 다 말함
- 0학년 학기 초 교사의 실수로 인해 반단톡에 학생들의 전 학년 말 성적이 유출되는 일이

있었다. 직접들은건아님

- "A 교사 - 단톡에 반 아이들의 내신성적, 등수 등의 엑셀 파일을 올렸다.
- 00과목 시험이 끝나고 난뒤 반에 찾아와서 000(이름) 은 몇점, 000(이름)은 몇점 , 나머지 애들은 전부 50점도 안된다고 성적을 공개했다.
- 희망대학을 쓸때 한 학생의 종이를 가져와 이것처럼 쓰라며 학생들에게 그 친구의 대학희망종이를 예시로 썼다"
- 0학년 교무실 교사들은 학생이 교무실에 있든 없든 신경도 안 쓰고 다른 학생들의 이름과 대학, 성적 등을 말하며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말들을 서슴없이 하셨습니다.
- 단톡에 서로의 성적이 적혀져있는 액셀 파일을 보냈다
- "0학년 0반 모든 학생 내신을 포함하여 전 학년 전체의 내신 성적이 들어있는 파일을 반톡에 유출함. 0반 학생한테 왜 이렇게 성적이 떨어졌냐며 모든 학생들이 다 보는 앞에서 너가 반 2등인데 몇점대다 이런 말들로 상처를 줌 제대로 된 사과도 없었을뿐더러 변명뿐인 말들로 핑계만 댐"
- 담임 A 교사는 저희반 단톡방에 내신을 유출하였고 여러번 모두의 성적과 관련된 파일을 보냈습니다. 그리하여 모두가 서로의 성적이 본의 아니게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16. 교사에 의한 물리적 체벌 또는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있다	7	8.0	8.0	8.0
	없다	80	92.0	92.0	100.0
	합계	87	100.0	100.0	

사례 응답(원문) 17번 문항

- "I 교사가 등때린 적이 많았음. 아마 목 조른 적도 한번 있었음"
- 길을 막았다고 옆으로 밀치고 지나감
- 그냥 손바닥 맴매 ㅎㅎ
- 0학년 때 00과목 선생님이 퀴즈를 내고 지정한 학생이 퀴즈를 틀리면 교사가 들고다니는 막대로 손바닥을 때리심. 다른 친구들은 크게 불쾌한 기색은 없었지만 개인적으로는 기분이 좋지 않았음.
- 없음
- "병지각을 해서 담임에게 진료확인서를 가져갔는데 "너는 왜 3교시 끝나고 왔으면 급식 먹지 말고 곧장 자기에게 와야지 왜 급식을 먹으러 갔냐"며(당시 3교시 끝나고 바로 점심시간이라서 바로 급식실로 가지 않으면 급식을 못 먹는 상황) 소리를 치다가 주먹으로 팔뚝을 세게 때림. 교장에게 바로 얘기했지만 오히려 돌아 오는 반응은 '그 분은 엄청 젠틀한 신사님이라 절대 그럴 일 없는데 너가 오해한거다, 너 팔을 쳐봤자 얼마나 세게 쳤겠냐,내가 만약 이 상황에서 너희 담임을 불러서 사과하라고 부탁하면 학교 생활 남은 기간동안 넌 선생님께 안좋게 찍힐 거고 그럼 세특이나 생기부에도 좋은 말이 달릴 수 없을 거다'라며 상황을 덮으려고 함
- 아직까지도 사과 한마디 못 받음"
- 수업시간에 추가로 필요한 교제를 가져오지 못해 손바닥을 회초리로 맞은적이 많습니다.
- A 교사는 1학기 상담때 제가 앉은 자리에서 화면에 띄어진 제 생기부가 잘 보이지 않아 모니터에 가까이 다가갔는데 뒷통수를 손바닥으로 치셨고 이일로 13번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사례 응답(원문) 18번 : 기타 학생인권침해 사실

- 사이가 좋지 않은 학생을 모두가 보는 앞에서 몰아가고 비난하는 행위
- 상담할 때 다른 반 담임 교사가 그 반 학생에게 화가 나셨는지 소리를 지르며 뭐라고 하셨고 그 학생이 듣다못해 빠르게 나가자 “미친년, 지랄이다”등 또 소리를 질렀고 옆에 계시던 다른 교사가 왜 그러냐는 식으로 물어보자 또 화를 내시며 “미친년이 이렇게 하라니까 저렇게 한다”등등 욕설을 섞어가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교사는 그냥 웃으셨습니다 저에게 한 욕설은 아니지만 그런 상황을 목격했던 적이 있습니다
- 교원평가에서 어떤 학생이 특정 교사들을 심하게 비방하여 단톡에 글이 올라온 적이 있음. 그 글을 올린 이후 특정 교사들은 모여서 누가 글을 쓴 건지 추측하기 시작했고 특정 근거들을 토대로 과중이라고 멋대로 추측. 그래서 0반 친구 한 명에게 추궁을 했다고 들었음. (하지만 어느 강도로 말을 했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음.) 0반 친구가 나에게 추궁당한 사실을 알린 다음 날 나와 친구 한 명이 교무실 앞으로 지나갈 때 붙잡고 교사휴게실로 데리고 가서 추궁을 시작함. 교사들은 교원평가에 써진 말에 대해서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 어떤 소문이 돌고 있는지 내게 물음. 그리고 자신들이 생각한 근거를 토대로 글을 쓴 것은 ㅁ반이라고 추측했다고 말함. 근거는 1. 교사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ㅁ반에서만 했기 때문에 2. 자신이(4번에 쓴 교사) 본교무실에 들어가지 말라고 주의를 줬던 반은 0,ㅁ반 뿐이라고 밝힘. 그 때 0반 학생들은 ‘아..넵!’ 이런 분위기였다면 ㅁ반 학생들의 표정은 ‘니가 뭔데’ 같은 분위기였기 때문에 ㅁ반에서 반항심이 보였다고 함. 같이 있던 친구는 0반 친구이기도 했고 너무 벙쪄있는 상태였음. 그리고 어줍잖은 근거를 토대로 내 앞에서 ㅁ반 애들 중 범인을 찾아달라는 게 어이가 없고 화가 나서 “제가 ㅁ반 실장인데 선생님들이 ㅁ반을 몰아가는게 조금 그렇네요. 저도 그 글을 쓴 친구가 안 밝혀졌으면 좋겠지만 이런 식으로 추측하실거면 차라리 형사처벌로 가서 범인을 밝히세요.”라고 답변함. 그리고 아들얘기에 대해서는 수업시간에 졸아서 그런지 들은 적이 없었다고 답했고 0반,ㅁ반 반응 차이에 대해서는 ‘쌤 과중에만 들어오신 거였어요?’하고 묻기만 하고 워낙 터무니없는 근거라 반박하지 않음. 내가 추측하는 것에 대하여 화를 내자 교사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말한 것 뿐이라고 사과함. 그리고 실장이니까 반이 어떻게 돌아가는 지 알 것이고 그 무리지어 다니는 친구들에게 어떤 소문이 돌고있는지 누가 퍼뜨린 것인지 알아내달라고 부탁함.
- 학급 실장 선거때 특정후보를 선출하는 암묵적인 언행을 하여투표권 및 입후보권에 영향을 끼침
- 직접 겪은 적이 많지는 않지만 수 많은 재학생들이 인격모독 당한 것을 직접 봤고 듣기도 했다
- 학생이 을이고 교사가 갑인줄 알아요 ㅎ
- 고등학교 0학년 00과목 수행평가로 조별 과제를 했을 당시, 팀원 혼자만 수행평가를 했음에도 조 내 개인 평가에서 문제가 없었다는 이유로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2학기 때에는 조별 평가를 시행하지 않겠다며 회피하셨습니다. 자신의 수업에 책임을 지고 올바른 평가를 통해 학생에게 맞는 점수를 주는 것이 교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부분에 해당할지, 인권침해에 해당하는지 몰라 이 문항에 적습니다.
- 제주여고에서 교원능력개발평가에 학생들이 나쁜말을 적었다고 반단톡에 교사들이 변호사와 얘기해봤다 사과해라 등등의 말을 공개적으로 하는 것 또한 협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두명도 아니고 심한말을 한 학생이 많았다는 것은 선생님들께서도 본인들의 행동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학기 초에 0학년 선생님 일부가 서울대학교 견학을 갔다 오면서 0반 C 교사가 0반 학생들 중 성적순으로 3명에게만 서울대 샤프를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0학년 때 대회에서 J 교사가 지도교사였습니다..... J 교사는 대회 준비할 때 저 포함 4명의 성적을 열람하겠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그렇게 약 6개월 이상 대회 준비를 했는데 대회가 끝날 때까지 성적순으로 상위 2명의 학생들 이름과 얼굴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다.."
- "학생들의 생활기록부를 작성할 때 일부 교사들이 학생들의 성적을 순서대로 성적이 좋은 학생의 생활기록부만 써준다거나 성적이 좋은 학생의 생활기록부를 더 길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인권침해는 아니지만 학교에서 폭언을 듣고도 교사에게 밉보이면 생활기록부 세부 특기사항을 잘 써주시지 않을까봐 항의를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더이상 학생들이 인권침해를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당하더라도 항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대학상담 중 성적에 맞는 대학교를 보고 비웃는건 기본, 상담 내용을 교무실 전체가 다 들릴정도로 크게 말하며 교사들끼리 학생 1명 상대로 대놓고 조롱하는 모습이 학생들보다 더 유치하고 배울 점 없고 한심하단 생각이 학교 생활 내내 들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이라고 할 수도 있는 수능을 앞둔 입시 생활 1년 내내 자퇴하고싶었고 죽고싶었고 지옥이었습니다. 이 설문을 토대로 다시는 저같이 상처받고 힘들었던 학생이 없었으면 좋겠고 정말 배울 점 많고 성숙한 어른을 선생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제주여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많은 학생들에게 상처를 준 교사들도 마찬가지로 상처를 받았으면 좋겠고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 지기를 바랍니다.

IV. 조사 분석 결과

가. 교사로부터 폭언(욕설, 협박, 비방, 비하의 말)

교사들의 폭언은 일부 교사들로부터 시작되었고, 교사들 사이에서 이미 관성화되어 있는 상황으로 파악되었다. 폭언 상황이 점차 일상화되고 있다.

- 응답 학생들 중 60%에 가까이 학교생활 중에 교사로부터 심한 욕설, 인격 모독적인 발언을 듣는 것으로 보인다. 물리적 폭력이나 체벌은 많이 줄었지만, 언어폭력은 크게 줄지 않고 있다고 추정된다.
- 특정 몇몇 선생님의 언어폭력을 집중적으로 고발하는 것으로 보아, 일부 교사들의 행태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다.
- 여성 혐오, 여성비하의 욕설이 많아, 실제 사회의 성차별적 인식에 기반을 둔 교사들의 언어행태가 드러나고 있다.
- 학생을 향한 교사의 폭언 사례가 대략 50건 정도 되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 폭언 행위가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 교사가 가진 생활기록부 작성 권한이 교내에서 상당한 권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교육권 침해 사례

교사들의 수업 충실도가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상황으로 보인다. 특히, 일부 교사는 수업 준비를 하지 않고 수업도 임의적으로 자습으로 대처하는 행위가 진술되고 있다. 학생들의 입장에서 특정교사는 교사의 자질이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한다.

- 교육권/학습권 침해의 경험이 30% 정도로 낮게 보일 수 있으나, 특정 학생과 상황, 성적 우수의 기준으로 학생들에 대한 차별적 상황을 만들고, 차별적으로 학생들을 대한다
- 특히,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을 비교하는 행위가 많다.
- 학생들의 학습시간에 학생들의 집중력을 방해할 수 있는 교사의 자의적 행위가 종종 발생한다.
- 교사의 근무 태만으로 인한 학생들의 교육권/학습권 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교사들의 성의 없는 수업 진행으로 학생들이 학력을 쌓아나가는 데 어려움이 많고, 교사가 담당하는 과목의 시험 내용도 부실하여 학생들의 학습에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
- 다양한 학습 경험이 제공되고 있지 못하다. : 과학 중점 학교(교육청 지정)이어서 다른 분야를 경험할 교육기회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교사들의 적극성에 따라 다양한 교육경험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전공에 따른 차별이 있다.

다. 성희롱

A교사의 성희롱/성추행적 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 성 문제와 관련하여 응답자의 10%가 넘게 성추행, 성희롱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다.
- 특정 교사에 관한 사례가 대부분이라 이에 대한 실제적 조사가 필요하다.

라. 학생들의 항의에 대한 학교 측 대응 인식

학생들의 문제제기 또는 항의에 대해 학교측 대응이 안이한 수준에서 이뤄지고 있다. 대다수의 경우 구조적으로 학생들이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학생들의 의사표현욕구가 억압되는 상황으로 보인다. 또한 문제제기를 하더라도 학교측은 학생들을 무마한다거나 학생들에게 오히려 불이익을 주는 경우도 있다.

- 언어폭력에 당해 학교에 항의한 경험이 20%에 달하고 있다. 항의 후 조치에 대해서는 응답한 70명의 5.7%만 적절한 조치를 받았다고 응답했다.
- 항의한 내용에 대해 오히려 학생들을 무마하려 하거나, 불이익을 준 경우는 25.7%에 달한다.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경우는 응답자의 35.7%에 이른다.
- 뿐만 아니라 기타 응답으로 명확히 구분되지는 않지만, 아예 항의를 하지 않고 체념한 학생들의 답변도 다수 확인된다.
- 학생들의 이야기에 대한 납득할만한 학교 당국의 대응이 한참 부족하다.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의 대응이 부적절하다. 학교 측의 대응 방식에 있어서 이에 대한 교사진 교육이나 인식도 부족하며, 전반적으로 학생들의 항의를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 학생 인권침해 행위로 발생하는 피해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잘 안 잡혀 있는 듯하다. 이에 관한 문제의식 자체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 학교 측의 미흡한 대처, 교사가 가진 생활기록부 작성 권한이 학생들이 부당함에 쉽게 항의하지 못하는 원인으로 추정된다.

마. 방역수칙 혹은 학교규칙을 어긴 사례

학교 내부 규칙에 대한 모든 학교 구성원의 동등한 규정 준수 의무가 교사들에 의해 훼손되고 있다.

- 학교 내 같은 구성원으로서 각자의 규칙의 준수해나가는 것은 모두에게 동등하게 주어진 의무이다. 교사의 구태적인 권위의식으로 규칙 준수의 의무가 종종 깨지는 모습은 권력적인 오만의 행태이다. 결국, 학생들에게 권력 구조를 심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 방역지침은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희생하며 지키는 규칙이다. 사회적 책무를 교육하는 공간에서 학생에게는 강요하고, 교사는 의무의 속박에서 벗어난 모습을 보인다.
- 교무실에서도 방역지침 위반행위가 많다, 특정 선생님들의 위반행위가 많다.
- 교육공간으로 해석될 수 있는 곳에 담배 아지트를 교사들이 만들고, 교내 금연 규칙 준수가 미비하다.

사. 개인정보 유출 / 프라이버시 침해

학생들의 학업성적와 개인 프라이버시를 개인정보로 인식하지 못하고, 오히려 개인정보를 학업성적 성과에 이용하고자 학생들의 성적을 비교하는 행태가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특정 교사 행위 심한데, 공개적인 공간에 반 평균 공개. 성적표가 공개되는 상황이다. .

- 개인별 성적 및 개인의 진로에 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개별 학생들의 수치감, 자존감에 상처를 내는 상황이 만연하게 발생하고 있다.
- 성적 지상주의로, 성적인 낮은 학생들에 대한 채찍질로 성적 정보를 공개하는 것으로 보이나 학생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성적에 대한 성과를 올리려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 사안이다.

아. 물리적 체벌 / 폭행 경험

교사들의 애정 표현이거나 교육적 훈육이라 하더라도 학생들에 대한 신체적 접촉이나, 물리적 행위는 문제가 된다는 인식이 없다.

자. 기타

- 학생들에 대한 불평등한 대우가 큰 불만이 되고 있고, 개인적으로 상처가 되기도 한다.
- 생활기록부 작성에 관한 교사의 권한/권력 행사방식이 학생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막고 있다.
- 성적으로 인한 차별적 발언이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 학생들이 평가하는 교원 능력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사법적 처벌의사를 공개적으로 공지하는 일이 발생하고, 학생을 색출하고자 하였다. 이는 학생들의 교원 능력평가의 목적을 훼손하고, 건전한 교육자/피교육자 간의 소통구조를 훼손하는 행위로 판단된다.

V. 결론

이번 기초조사를 통해서 우리는 제주여자고등학교의 학내 상황이 학생들 입장에서 매우 차별적이며 비인격적 대우와 언어폭력이 학내 관행적 상황이 되어감을 분석할 수 있었다. 특히 특정 몇몇 교사의 행위는 반드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이번 조사가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이뤄졌고, 전체 학생들도 포괄하고 있지 않지만, 적지 않은 학생들이 응답한 내용은 상당히 충격적이다.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사실관계 조사가 제주도교육청을 통해서 이뤄져야 할 것이다.

학내 상황을 개선하고 모두의 존엄성이 존중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것이고, 제주도내 모든 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육의 주체로 바로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첨부 : 설문지 <제주여고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에 관한 기초조사>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여자고등학교 2021년 학생회장을 맡았던 김채은입니다.
우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문을 드리게 된 목적과 배경에 관해 설명해 드리려 합니다.
지난 3년간 제주여고에서 저는 선생님들께 다양한 욕설과 폭언을 듣곤 했습니다. '사립이라서 그런가'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고, 폭언을 듣고 우는 친구들에게도 "무시해. 네가 참아 '라는 말밖에 해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벌써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잘못했다면 잘못에 대해서만 혼이 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입시에 대한 지식이 비교적 부족한 우리는 충분히 다정한 말로 설명 듣고 함께 고민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린 생활기록부 세부 특기 사항이라는 큰 약점이 잡힌 채 이대로 지내왔습니다. 저 역시 이제야 용기를 내는 것이 너무 속상하고 부끄럽습니다. 대입이 저에겐 그 무엇보다 소중했으며, 제주여고에서의 폭언 및 욕설들이 세상에 알려진다고 하더라도 바뀌는 것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이 제주여고 학생 모두에게 포함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모든 선생님의 잘못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다시는 우리 후배들이 같은 폭언과 욕설을 당연시 생각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우리의 상황을 보다 잘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익명 혹은 실명 상관없이 자신이 겪었던 혹은 자신이 들었던 폭언, 욕설, 폭행 등 적어주시면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해당 설문과 관련된 내용은 비밀 유지 부탁드립니다.

이 설문은 우리 학생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주축이었던 학생단체 '제주학생인권조례TF팀' 과 제주도내 인권단체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의 주관으로 진행되며, 제주여고 학생 당사자로 제가 참여해서 진행합니다. 여러모로 궁금한 점은 e-메일(jejuphri@gmail.com) 주소로 문의해주시면 최선을 다해 응답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응답자의 신원은 절대 공개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잘못된 것은 꼭 바꾸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래 설문에 답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조사 주체 : 제주학생인권조례TF 팀, 사)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조사 기간 : 2022년 1월 27일(목) ~ 30일(일)
조사 대상 : 제주여고 재학생
조사 관련 문의 : jejuphri@gmail.com

* 아래 설문 문항에 해당하는 칸에 표기해주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선택사항입니다.

1. 학교생활 중 교사로부터 폭언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욕설, 협박, 비방, 비하의 말)
    가. 있다
    나. 없다
2. 들은 폭언을 적어주십시오(필수 아님) _____

3. 학교생활 중 본인 교육권(교육받을 권리, 학습할 권리 등)을 방해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다. 있다
    라. 없다
4. 교육권을 침해받은 사실을 적어주십시오(필수 아님) _____

5. 학교에 인격모독 / 비방 / 협박 / 체벌 / 성희롱 등을 당해 항의해보신 적이 있나요?
    아. 있다.
    자. 없다

6. 학교에 항의 했을 때 학교 책임자(담당교사 또는 교장 등 학교 책임자)의 반응은 어땠나요?
    가.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다. (가해교사에 대한 적절한 조치 및 상황에 대해 피해자에 피해 회복조치 이행
    나. 피해학생을 달래고 무마했다.
    마. 피해 학생을 나무라고 오히려 피해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었다.
    바.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
    사. 기타_____

7. 학교에 항의한 사실을 적어주십시오(필수 아님) _____

8. 교사가 동료교사를 비난 / 욕설 하는 것을 보거나 들은 적이 있습니까?
        가. 있다
        나. 없다.

9. 교사가 동료교사를 향해 한 부적절한 발언은 무엇입니까? (필수 아님)

10. 교사가 수업 중 마스크를 쓰지 않는 등 방역수칙 혹은 학교규칙을 어기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가. 있다
        나. 없다.

11. 구체적 사례가 무엇입니까? (필수 아님)

12. 성희롱 혹은 성추행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가. 있다
나. 없다.

13. 구체적 사례가 무엇입니까? (필수 아님)

14. 교사가 함부로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신상정보를 유출하여 프라이버시를 침해한 적이 있습니까?
가. 있다
나. 없다.

15. 구체적 사례가 무엇입니까? (필수 아님)

16. 교사에 의한 물리적 체벌 또는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가. 있다
나. 없다.

17. 구체적 사례가 무엇입니까? (필수 아님)

18. 기타 학생인권침해 사실이 있다면 적어주세요(필수 아님)

<일반 통계>
18. 제주여고 재학생입니까?
가. 재학생 나. 졸업생

19. 재학생인 경우 몇 학년이십니까(2021년 기준)
가. 1학년 나. 2학년 다. 3학년

20. 제주여고내 학생인권개선을 위해 사례를 증언해주실 수 있거나, 동참하고 싶으신 분께서는 연락처 또는 e-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익명으로 남기셔도 됩니다. (필수 아님)

응답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끝.